

# 베이징 올림픽 계기 중국특수 기대

## 산자부, 한국-중국 교역 2008년 1000억달러 돌파 전망

중국의 여름 올림픽 유치에 따라 한-중 교역규모가 2008년 1000억달러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.

산업자원부는 7월13일 '중국의 올림픽 유치가 수출에 미칠 영향'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따른 특수기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.

분석자료에 따르면, 중국 경제는 외국인 투자 확대와 올림픽 관련 투자확대를 통해 앞으로도 연평균 8%가 넘는 안정적인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도 2008년까지 연평균 15% 안팎의 증가세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###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

(단위: 100만달러)

| 구 분  | LA(1984) | 서울(1988) | 애틀란타(1992) | 시드니(2000)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경제효과 | 1,400    | 2,600    | 3,500      | 6,500     |

자료) 한국개발연구원(1988), Arthur Anderson(1991)

중국산 수입도 연평균 15% 이상 늘면서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2004년 500억달러 선을 돌파하고, 2008년에는 수출 565억달러, 수입 460억달러 등 모두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.

올림픽 특수가 기대되는 분야로는 ▲철근, 시멘트 등 건설기자재 ▲디지털TV, PDP(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), DVD플레이어, 방송기자재, PC 등 디지털 가전분야 ▲통신 및 정보기술 분야 ▲집진기, 폐수처리시설 등 공해방지설비 등을 꼽았다.

특히, 경기장과 숙박시설은 물론 공항,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에 국내 건설기업들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.

### 한국-중국 수출입 전망

(단위: 10억달러)

| 구 분 | 2000 | 2002 | 2004 | 2006 | 2008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수 출 | 18.5 | 24.4 | 32.3 | 42.7 | 56.5 |
| 수 입 | 12.8 | 18.0 | 26.0 | 35.0 | 46.0 |

산자부는 중국경제가 세계무역기구(WTO) 가입과 올림픽 유치에 따라 2010년에는 국민총생산(GNP)이 2조달러에 육박할 전망이어서 동북아지역 수요창출의 엔진이 될 전망이며, 세계 주요 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특히, 합작투자나 공동개발 등 중국과의 전략적 산업협력을 확대하는 한편, 고가전략과 문화 및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

산자부는 무역협회, 업종별 단체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중국에 대한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, 9월 베이징에 조사단을 파견기로 했다.